

# 돼지 지육가격 발표 방식 변경과 지급률 공방전

## - 양돈농가, 육가공업체 출하시 최소 66% 적용 주장

김동성

(본회 홍보부장)

**농림부, 작년 12월 1일부터 지육가격 발표방식 변경**

**축**산물 도매시장에서의 돼지 지육가격 발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생돈 형태로 거래를 해오던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중간상인 포함)간에 지급률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그동안 비육돈과 모돈, 그리고 총 평균 지육가격 형태로 발표를 해오던 축산물 도매시장에서의 돼지 지육가격 발표 방식을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총 평균은 제외하고 비육돈과 모돈 평균가격만 발표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가공업체 또는 중간상인들에게 비육돈을 판매하면서 비육돈의 암수비 또는 결제조건에 따라 보통 모돈이 포함된 도매시장 총 평균가격에

70-74%의 지급률을 곱해서 정산받아 왔다. 그 결과 비육돈을 판매하면서도 비육돈 가격의 1/2도 채 안되는 모돈가격이 포함된 평균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모순이 있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물론, 지급률에는 총 평균가격의 모순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래서 본회에서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농림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개선을 하게 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농림부의 결정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민의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일부 육가공업체 횡포로 양돈농가 “출하 보이콧”하기도**

그런데 문제는 생돈을 거래

하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에 일어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는 했지만, 육가공업체는 가급적 지급률을 낮출려고 하고, 양돈농가들은 지급률을 높이려고 하는데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출하를 일시 보이콧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극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육가공업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격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한 몫 보자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많은 육가공업체 지급률 66~67.5% 적용 합의**

그러나 본회 서울지부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는 양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비육돈 출하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부는 변경 전에 지급률 72%(암수는 자연비, 도축장 도착 기준)

에 차량 1대당 운반비 10만원을 받고 출하를 하다가 변경후엔 67.5%에 운반비 5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결제조건은 출하 다음 날 현금지급 조건이다.

수원지부도 66%(암수는 자연비, 도축장 도착 기준)에 A등급 2%, B등급 1.5%, C등급 1%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육가공업체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 남부지역의 양돈농가들도 D식품(주)등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들과 서울 및 경남 도매시장 규격돈 평균가의 66%를 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정상출하를 하고 있다.

### 축기연 조사 지육률 적용 시 지급률 66~67%가 적정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재 (주)한냉을 비롯한 일부 육가공업체들은 양돈농가가 운반비를 부담하고 도축장에 돼지를 도착시켜 주는 조건으로 63.5~64%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양돈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한냉의 경우 63.5~64%를 기본 지급률로 하고, 일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나 농가들은 그 혜택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육가공업체들은 63.5~64%를 지급해야 수지가 맞다는 입장인 반면, 양돈농가들은 최소한 66%는 받아야 제 값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들은 66%를 받아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축산기술연구소가 97년에 조사한 비육돈의 평균 지육률이 67.9%(도축장 도착 대비 박피지육률, B등급 기준)인데, 여기서 부산물(6,500원)과 상장수수료(2,700원)를 제할 경우 육가공업체가 부담할 도축 제비용은 4,460원(13,660원-(6,500원+2,700원))이라는 것이다. 4,460원을 지육률(지육 kg당 평균가격 3,000원 가정)로 환산하면 1.5%가 되는데, 이것을 평균 지육률 67.5%에서 제하면 66%를 받아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주)한냉의 경우 도소매상들과 같이 중매인들에게 수수료(거래대금의 1.5%, 약 3,000원)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제하면 67%까지 지급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축협 목우촌 평균 박피 지육률 67.4%

축기연이 조사한 평균 박피 지육률 67.9%는 축협중앙회 목우촌육가공공장(김제)에 출하된 돼지의 평균 지육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객관성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목우촌육가공공장에는 총 525,955두의 돼지가 출하되었는데 평균 지육률이 67.4%(도축장 도착체중 대비 지육률)를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97년과 98년에 암돼지는 74%, 거세돈은 70~71%의 평균 지급률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를 비육돈 가격으로 환산해도 66.63%와 66.14%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 공기업인 (주)한냉, 지급률 문제로 양돈농가와 마찰

이에 대해 (주)한냉은 금년 1월부터 11월에 출하된 돼지의 총 지육률과 비용, 도매시장의 총 평균가 등을 고려할 때 63.5~64%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육률과 비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본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 제시를 기피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률이 결코 적지 않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돈농가들은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모든 출하 비율이 높아 규격돈 가격 대비 총 평균가가 예년에 비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금년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IMF 이전인 작년도의 총 평균가 대비 규격돈의 가격 차이가 180원이었던데 반해 금년에는 모든 출하비율이 훨씬 높아 그 가격 차이가 232원까지 발생했다. 금년 1~2월에는 사료 구입난 등으로 서울 도

매시장 모든 출하두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5%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이 차이를 지육률로 환산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 12개지역 양돈인 60여명 (주)한냉 항의 방문

이같은 태도에 대해 (주)한냉에 돼지를 납품하고 있는 청주·청원지부를 비롯해 괴산, 안동, 서산·태안, 평택, 아산, 홍성, 예산, 음성, 영동, 진천, 충주지부의 지부장과 양돈인 60여명은 12월 21일 (주)한냉 중부공장을 방문하고, (주)한냉의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지급률을 66%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6%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돼지가격 정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축협 김제육가공공장과 같이 돼지도 체등급별, 성별에 따라 돼지가격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한냉 중부공장에서는 등급사들이 파견되어서 정상적으로 도체등급을 시행하고 있다. 도체등급을 하면서도 등급에 따라 가격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갈 몫을 고의적으로 줄이고, 돼지개량을 통한 돼지고기 품질향상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이 양돈에서 도체등급에 따라 가격을 정

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냉에 돼지 출하를 집단 거부하는 한편, 부당성에 적극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주)한냉, 사전 설명없이 규격돈 기준 일방 변경통보 “횡포”

이에 대해 많은 양돈농가들은 “어느 육가공업체보다도 양돈농가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지급해야 할 공기업인 (주)한냉이 양장서서 지급률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기업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들은 “(주)한냉이 규격돈의 기준을 탕박지육 75~95kg에서 76~90kg으로 축소하면서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횡포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한냉의 경우 중부지역에서 돼지를 취급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타 중소육가공업체들도 (주)한냉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타 육가공업체에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들도 똑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합리적인 지급률 정산 방법 제시해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이다. 가격은 또한 품질에 의해서도 차별화가 되어야 하며, 품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을 몇 % 지급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이다.

도체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품질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생돈을 거래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률을 결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양돈농가와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정기간 돼지를 사주지 않으면 공산품처럼 농장에 돼지를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농가들이 알아서 기어들어 오겠지”하는 오만한 자세를 갖고는 상호 신뢰를 쌓기 어렵다.

과거 60~70년대에는 중간상인들이 농가를 들면서 돼지를 구입해 갔는데, 그때는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시세 정보가 어두운 농가들에게 돼지 값이 헐 값이라며 가격을 후려치는 것이 예사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를 안 농가들이 일부 상인들을 불신하기도 했으며, 이같은 불신이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의 뇌리를 완전히 떠났

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말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체등급에 따른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모든 돼지가 이와같은 방법으로 거래된다면 지급률 공방전도 벌어지지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기간중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혁에 가장 큰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는 수출양돈산업의 쌍두마차”

다행히 98년도에는 돼지고기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보다 80% 이상 급증한 8만5천톤을 넘어섰다. 그래서 양돈산업이 효자수출산업으로 떠올랐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정책과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가 상호 이해하에 공동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는 수출양돈산업의 쌍두마차인 셈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금방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그동안 수출산업으로까지 발돋움하는데 동반자 역할을 담당했던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의 신뢰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양돈농가들도 육가공업체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 그동안 육가공업체가 수출을 주도해 돼지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육가공업체가 살아야 양돈농가가 산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는 상호 신뢰하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만하게 지급률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 양돈산업을 21세기에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야만 수십년동안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농림부의 정책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양돈**



## 팩스 있으십니까?

###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